020622 주일설교 "경건의 비밀" 디모데전서(1 Timothy) 3:16
16.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인트로 예화:

어느 날 배고픈 멧돼지 한 마리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땅에 사과가 떨어져 있는거에요. 멧돼지는 사과가 땅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파고 파도 아무리 파도 사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깊이 판 구덩이에서 스스로 나오지 못하고 지쳐서 뒤로 벌러덩 나자빠져 있는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있는거에요. 멧돼지는 구덩이에서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 말을 남겼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어야지!!!"

사람은 무엇을 쳐다보고 사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땅을 보고 사는 자는 땅의 것으로 살 것이고,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자는 하늘의 것으로 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쳐다보고 사는 자는 미래의 꿈과 소망으로 기쁨을 누릴 것이요, 과거를 쳐다보고 사는 자는 과거의 아픔과 분노와 아쉬움에 발이 묶여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너희 눈을 들라"고 말해요. 시편 121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1-2절)라고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무리 바쁘고 마음이 분주해도 땅만 보지 마세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열심히 땀흘리며 일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유와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에 주님께서 계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이 여러분 삶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여러분 삶에 목적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성경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먼저 디모데라는 말 뜻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가 되어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중성스럽게 감당한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목회자 가운데 한사람이죠. 디모데전서는 **주후 64년경에** 바울이 출옥하면서 빌립보에 있을 때 그의 제자이며 동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를 보통 ´목회서신´이다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 전체를 염두에 두고 쓴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이 편지들은 당시 교회를 지도하는/목회하는 디모데와 디도를 위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 디모데전서의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계속) 거하는 것**과 둘째 다른 헛된 교리(혹은 거짓 교훈/나날이 바뀌는 세상 풍조/사조)들을 따르지 말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제일 마지막 부분인, 6장 20-21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복음은 철학이나 지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 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찌어다.´ 당시 신학적으로는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사상을 대항하여 쓴 표현이기도 하지만, 좀 더 쉬운 말로 바꾸어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과 형식으로만 그치고,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담겨있어요. *영적으로 교만함에 대한 경고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러한 배경들을 염두해 두고 오늘 말씀을 다시하면 묵상해 보시길 바래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언뜻드는 생각은, ´경건´이라고 하면 이미 잘 아는데? 뭘 비밀이라고까지 말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행적들을 적고 있는데, 그 또한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교회생활을 오래하신 성도님들은 경건하면 너무도 잘 알고 계셔요. 올해 2022년 사순절이 3월 2일 수요일부터 시작되니까 사순절이 3주 정도 남았는데요, 사순절하면 경건훈련을 위한 절기로 여겨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

안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점검하는 절기에요. 일반적으로 경건훈련이라고 하면 기도생활, 말씀생활, 찬양, 절제와 구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다 알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잖아요. 다 알면 신비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경건에는 비밀이 있다는 거에요. 신비롭다고 했어요! 경건훈련을 안해봐서 경건이 비밀스럽고 미지의 세계인 경우도 있겠지만, 경건훈련을 아무리 오랫동안 감당했어도 여전히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여전히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워야지! 뻔하고 지루하고 익숙해져서만은 안된다는 얘기**도 됩니다! 아직도 우리들에게 감춰져있고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에요.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스스로 선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을 잘 알고 보고 있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경건의 비밀을,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앞에 열어 주시길 겸손히 또한 간절히 바라시고 그러한 생명력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도다: 3인칭 직설법 현재형 동사!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비밀: 감춰진 것, 신비, 비밀하면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비밀한가지 말씀드릴까요?' 라고 하면 아마도 '뭔데요? 뭔데??´ 이런 호기심이 따라오실 겁니다. 이유는 모르는 것, 감춰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비밀도 이 점은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집은 도데체 뭐 먹고 사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해할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실 일들에 궁금해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세상의 비밀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이건 복음의 진리가 사람이 밤

새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풀려고 한다고 되는게 아니에요. 이성으로나 직관적으로 (학습과 연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복음이 이성과 상반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성 이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해서 알아지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시편 118:22-23,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스스로 주님을 잘? 알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크고 좋게만 여겨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에 값없던 것이 이제는 보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전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것이 주를 믿고 난 후 값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가운데도 구체적으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유세베이아**] 거룩, 헌신, 본분을 다함, [**유**:번영하여, 좋은, 잘]+[**세보마이**: 예배하다, 경배하다, 헌신하다, 믿다] **잘(제대로) 믿는 것! *복음의 비밀이여!!!**

-고든- 경건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의 자리까지 스스로 낮추시는 겸손이다. 죄악의 비밀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교만이다.

오늘 성경 말씀의 뒷부분은 사도신경을 생각나게 해요.

육신으로 나타나시고/**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만국**(이방인, 이방나라)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대조를 잘 음미해 보세요. 땅에 속한 표현으로 육신, 만국, 세상 반면 하늘에 속한 표현으로 영, 천사, 영광…. 초대교회의 신앙고백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본질적인 사실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신앙생활(교회생활)이 경건의 모습은 가져다주지만 경건을 가지고 오지는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 우리는 경건의 모습과 경건 자체를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살기**보다는 경건의 모습만 취하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보다는 그냥 교인으로 살기 원하는 경우요. 이에 파생되는 결과는 매일의 삶 속에는 변화된 증거가 없는거에요. ´정기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큰소리로 기도도하고, 찬양할 때 손도 들고, 헌금도 하고, 아멘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교회 밖,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삶 속에서는 구체적인 열매가 없다면, 내 삶은 경건한 삶이 아니라, 경건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이탈리아 나폴리에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소년이 살았어요. 그 아이는 공장에서 일하며 어렵게 학교를 다녔는데, 한번은 음악시간에 가수가 되고 싶다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소년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네 목소리는 덧문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으니 그 따위 꿈은 포기해라!” 듣고 있던 친구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의 어머니만은 아들의 꿈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농사를 지으며 살던 이 어머니는 어찌나 가난했던지 ‘맨발의 과부’로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날품팔이를 하며 아들의 레슨비를 대주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려는 아들에게 늘 같은 말로 격려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너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신다, 그러므로 너도 새롭게 될 수

있다.” 이 어머니의 믿음으로 탄생한 가수가 바로 세계적인 테너 엔리코 카루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불신이 있다면 그건 “나는 가망없다” 는 생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새로워질 수 없다.” “나는 변화되기에는 너무 늦었다.” 는 생각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혼돈과 공허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불신이에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변화하라는 요청이며 거듭났다는 말은 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이 기대가 되고 신비롭고 비밀스럽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거에요. 이런 찬양의 가사도 있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을 그리고 행하실 일을 궁금해하고 비밀스러워하십니까? 경건의 비밀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주의해야 할 건 바로 매너리즘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으며, 또 어떤 일을 행하실지 소망하며 나아가고 또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한 주간 세상에 파송합니다!